

“가족 다 굶어죽는다”…가자 주민들, 유엔 구호트럭 약탈

WFP “구호 트럭 77대, 배급창고 가던 길서 식량 빼앗겨”
이스라엘 80일 봉쇄에 ‘생지옥’…“200만 인구 기아 직면”

오랜 전쟁과 봉쇄로 식량난이 심각한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서 굶주린 주민들이 구호 트럭을 길에 멈춰 세우고 식량을 가져가는 일이 빚어지고 있다고 영국 BBC 방송, 미국 CNN 등 외신들이 전했다.

유엔 세계식량계획(WFP)은 지난 달 31일(현지시간) 가자지구 중남부 지역을 이동하던 WFP의 구호 트럭 약 77대가 모두 배급소로 가는 도중에 굶주린 민간인들에 의해 구호 식량을 빼앗

겼다고 밝혔다.

WFP 측은 “모든 트럭들이 가는 길에 멈춰 세워졌으며, 주로 가족들을 먹이려는 굶주린 사람들에게 의해 식량이 빼앗겼다”고 밝혔다.

아비르 에테파 WFP 대변인은 BBC에 구호 트럭이 창고 등 목적지까지 도착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군중이 몰려들 경우에는 보통 사람들이 구호품을 가져가도록 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날 구호 트럭을 약탈한 이들은 주

로 음식이 온다는 소식을 들은 민간인들이었다면서 “배급소까지 가는 것을 기다릴 수 없는 절박한 이들이었다”고 말했다.

현장에서 직원들은 한 사람당 밀가루 한 봉지씩만 가져가도록 지시했지만, 몰려든 군중을 완전히 통제할 수는 없었다고 WFP 측은 밝혔다.

CNN은 이날 가자 남부 칸유니스에서 촬영된 한 영상에서 사람들이 밀가루 포대를 나르는 모습이 담겼으며, 가자 중부 넷자림 지역에서는 밀가루를 가져가기 위해 몰려든 군중 뒤로 총소리가 울려 퍼졌다고 전했다.

앞서 이스라엘은 약 80일간 이어진 강도 높은 봉쇄를 풀고 지난달 19일부터 가자지구에 구호

물자 반입을 허용했다.

그러나 유엔 등 국제기구들은 봉쇄 해제 이후로도 식량 등 구호물자가 충분히 반입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국(OCHA)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가자지구가 지구상에서 가장 굶주린 곳이라면서 200만명이 넘는 가자 인구 전체가 사실상 기아위기에 직면해있다고 경고했다.

유엔은 이스라엘이 구호트럭 반입을 허가한 이후에도 지난 2주간 약 900대의 트럭밖에 들어가지 못했다면서 이는 굶주린 가자 주민들이 필요한 양의 10%를 조금 넘는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WFP는 “거의 80일간의 완전한 봉쇄 이

후로, 굶주린 사람들은 식량 트럭이 지나가도록 두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처럼 극심한 굶주림에 시달린 주민들이 구호 트럭을 멈춰 세우거나 식량 배급소를 약탈하는 일이 이어지면서 국제 사회는 구호 활동에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아랍에미리트(UAE)는 지난주 계획된 구호 트럭 2대 중 단 한 대만이 계획된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지난주에는 이스라엘과 미국이 주도하는 가자 인도주의재단(GHF)이 개소한 배급소에 굶주린 주민 수만 명이 몰려들면서 11명이 숨지고 수십명이 다치는 대혼란이 빚어지기도 했다. /연합뉴스



공습에 파괴된 민가 1일(현지시간)우크라이나 자포로지아에서 구조대원들이 러시아의 공격으로 파손된 개인 주택의 잔해를 제거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日公항에 한국인 전용 심사대…“수속 편하고 좋아요”

한일수교 60주년 맞아 4개 공항서 한달간

한국과 일본은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아 6월 한 달간 한국 김포·김해 공항, 일본 하네다·후쿠오카 공항 등 4곳에서 상대국인 전용 입국 심사대를 운영한다.

이 심사대를 이용하려면 입국일 기준 1년 이내에 상대국을 방문한 이력이 있는 관광객 등 단기 체류자여야 하며, 사전에 입국·세관 신고를 마쳐야 한다.

또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 이전에 도착하는 항공편을 이용해야 하고, 김포공항과 하네다공항의 경우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일본항공, 전일본공수 탑승객으로 제한된다.

하네다공항에서 한국인 전용 입국 심사대 이용자는 일반 외국인 입국자와 달리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 우선 레인’이라는 안내문을 따라 입국장 오른쪽 끝으로 이동하게 된다.

이동 경로 곳곳에는 한일 수교 60주년 로고와 ‘두 손을 맞잡고, 더 나은 미래로’를 뜻하는 일본어 슬로건이 인쇄된 안내판이 세워졌다.

하네다공항은 이날 외국인 대상 입국심사 창구 16개 가운데 6개를 한국인 전용으로 할당했다. 또 외국인 입국 수속용 키오스크 43개 중 16개를 한국인 전용으로 정했다.

한국인 전용 심사대를 이용하면 거의 줄을 서지 않고 입국 수속 절차를 간단히 마칠 수 있다.

이날 오전 하네다공항에서 한국인 전용 입국 심사대를 통해 일본에 입국한 한국인은 80여 명으로 알려졌다.

이용자들은 대부분 입국 시간이 단축돼서 좋다고 밝히고 제도가 연장되기를 희망했다.

한국인 중 가장 먼저 전용 심사대에 도착한 50대 남성은 “제도가 계속되면 좋겠다”며 “한일 관계도 더 좋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오수현(41) 씨는 “일본은 짧게 와서 일정을 알차게 보내려는 사람이 많은데, 전용 심사대가 생기자 반갑다”고 전했다.

한국과 일본은 상대국으로 출국하기 전 입국 심사를 마치는 사전 심사 제도 도입도 검토하고 있다. /연합뉴스

우기 시작된 인도, 북동부서 홍수·산사태로 22명 사망

정전에 휴교령…“더 많은 비” 예고

몬순 우기가 시작된 인도 북동부에서 며칠간 폭우가 계속되면서 산사태와 홍수로 수십명의 사망자가 나오고 있다고 힌두스탄 타임스 등이 1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전날 아삼주 구와하티에서 산사태가 나면서 가족이 매몰돼 5명이 숨졌다. 또 중국과 국경을 접한 아루나찰 프라데시주에서는 지난달 30일 차 한 대가 홍수에 휩쓸려 7명이 사망했다.

인도 당국 공식 보고에 따르면 미조람주와 트리푸라주, 메갈라야주 등에서도 홍수와 산사태로 사망자가 속출하면서 지난달 30일 오후부터 31일 오후까지 24시간 동안 인도 북동부 지역에서 22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AP 통신은 전했다.

폭우가 계속되면서 아삼주에서는 감전 사고를 막기 위해 일부 지역 전력을 차단했고, 이 영

향으로 학교들에 휴교령이 내려졌다.

인도 기상청은 이 지역에서 앞으로 며칠간 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고 예고했다.

인도, 파키스탄 등 남아시아에서는 매년 6-9월 몬순 우기가 이어지는데 올해는 평년보다 1주일 정도 빨리 우기가 시작됐다.

이 기간에 내리는 비는 극심한 여름 더위를 식혀주고 농작물에 필요한 물을 공급하며 저수지와 지하수를 보충해 준다.

하지만 지하 하수 시스템이나 관개시설 등 인프라가 부족한 곳에서는 많은 재산·인명 피해가 발생한다.

여기에 지구 온난화 현상 등으로 극단적인 기상 현상이 자주 발생해 갈수록 피해는 커지고 있다.

2022년 우기 때는 파키스탄에서 국토 3분의 1이 물에 잠기는 대홍수가 발생해 약 1천700명이 숨지고 이재민 3천300만명이 발생하기도 했다. /연합뉴스

러시아 접경지역서 교량 붕괴 후 열차 탈선

최소 7명 사망·부상자 28명 이상

러시아 서부 브란스크주(州)에서 교량이 붕괴해 최소 7명이 숨지고 수십명이 부상했다.

지난달 31일(현지시간) 타스통신에 따르면 이날 오후 10시50분께 브란스크의 교량이 무너졌고, 이어 현장을 지나던 모스크바발 열차가 탈선했다.

현장에 급파된 구조팀은 사망자 3명과 부상자 28명을 발견해 이송했고, 수색작업을 이어 나가고 있다.

이후 브란스크 주지사는 사망자 수가 7명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러시아 정부는 교량 붕괴와 열차 탈선의 경위를 조사 중이다.

모스크바 철도청은 성명을 통해 “불법행위로 인해 교량이 파손됐다”고 밝혔지만, 더 이상 자세한 설명은 하지 않았다.

브란스크는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맞댄 지역이다.

러시아 당국은 “수사관들이 현장을 조사 중이고, 사고와 관련한 모든 정황을 밝히기 위한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사단법인 한국건강관리협회 건강증진의원(광주)
Korea Association of Health Promotion

건강검진 어디서 받을까?

검진은 의료기관에서

예약문의 062)363-4040

<http://gwangju.kahp.or.kr>



심의번호
220603-중-139779